

“AI 확산 막아라” 설 민족대이동 앞두고 전남도 방역 초비상

AI 발병 고창과 장성 15km 불과... 도내 철새도래지 10곳

영광·장성 등 64곳에 통제초소 설치... 경찰·군인 배치

전북 고창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전남도가 이동 통제초소를 대폭 늘리고,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가 발생한 고창 농가와 장성군의 직선거리가 15km에 불과하고, AI 발생 고창 농장 인근의 저수지에서 때죽을 당한 가창오리가 발견되면서 방역 비상이 걸렸다.

전남지역에도 고천암 등 가창오리 도래지가 10곳에 달해 철새가 AI 감염원으로 밝혀진다면, 광주·전남에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남도는 “AI의 이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16일 영광과 장성에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도내 64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했고, 모든 차량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창과 인접한 영광과 장성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영광 나들목 등 연결 도로 6곳에 차량 통제초소가 설치됐다.

도는 또 지역 내 58곳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거점 소독을 하고 있으며, 가축이나 사료·분뇨 운반 차량 등은 정밀소독 하고 있다. 각 통제초소에는 경찰이 배치됐고, 20일에는 군인들이 배치돼 방역을 돕는다.

이처럼 전남도가 발 빠르게 방역에 나서고 있는 것은 도내 1만 축산 농가에서 41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오리 키우기 등, 첫 발생지가 전남지역과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영광호에서 가창오리의 것으로 보이는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순천만, 주암댐, 영산강(우습제), 고천암, 영암호, 대동저수지, 고흡만, 해장만, 득량만,

강진만 등 10곳의 철새 도래지가 있다. 이들 지역에 가창오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 AI 감염원이 철새로 밝혀진다면, 전남지역에서도 AI가 확산될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전남도는 이들 철새도래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인근 및 도로에 떨어진 철새의 분변을 제거하고 있으며, 인근 1052 농가를 선진해 집중 방역하고 있다.

또 모든 시·군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축산 관련단체장 선거 등도 연기할 계획이다.

고창과 접한 인근 시군에도 비상이 걸렸다. 장성군은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했다. 장성군은 관내 가금류 사육 11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역학조사를 하고 방역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1년 1~3월 나주, 영암, 화순, 장흥, 보성, 여수, 담양, 고흡 등지에서 AI가 발생, 오리, 닭 308만8000여마리가 폐사해 37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지역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차량 이동금지조치가 내려진 19일 방역당국이 광주시 남구 입촌에서 나주 남평으로 향하는 모든 차량에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권 일시 이동중지 명령” 효과는 미지수

축산 관계자 14만여명·차량 2만여대 추정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 승용차 등 막을 방법 없어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도와 광주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하지만 대부분 육안으로만 농장 차량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남도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북과 광주시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이날 새벽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스탠드스틸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 스탠드스틸 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가축·축산 관계자는 14만여명, 차량은 2만여대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사료의 긴급 지원 등 부득이한 이동의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또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인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의 시행이 발표되는 대로 즉시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차량을 육안으



로 확인해 통행을 금지해야 하는 등 하점도 많다. 일일이 차량 등록 현황을 보고, 관련 차량의 통행을 중단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축산 관계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육안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을 옮기는 대형 차량을 제외하고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등의 통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 세계 가창오리 90% 이상 국내서 월동 철새, 감염원 판정 땀 ‘포위방역’ 유명무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씨 오리 농장 인근의 저수지에서 가창오리가 때죽을 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가창오리 가운데 90% 이상이 국내로 찾아와 해남 고천암호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에 폐사의 원인이 AI로 밝혀진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가창오리가 겨울을 보내는 곳이 전남지역에만 10곳에 달하고, 지난해 12월 영광호에서 발견된 가창오리의 것으로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가창오리의 폐사가 AI 때문으로 밝혀진다면, AI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가창오리가 많은 전남 지역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철새가 감염원으로 확인되면 비행경로의 모든 지역이 감염 위험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의 방역지역 중심의 방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부안만의 다른 농가에서 감염의 심 신고가 들어오고 고창 오리농장에서 불과 5.4km 떨어진 동림저수지에서 야생오리 1000여 마리가 때죽음을 당하면서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야생오리와 고창 농장, 부안 농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같은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번 AI 발생의 원인은 동림저수지의 야생오리일 가능성이 커진다. AI의 주요 감염원이 철새의 배설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창 농가와 부안 농가 모두 군산 하구둑~부안 졸포만~고창 동림저수지로 이어지는 겨울 철새의 주요 비행경로 상에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I ‘H5N8형’은

국내 첫 발병... 2010년 중 장수성에서 한차례 확인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네 차례 발병한 적은 있지만 모두 H5N1형이었으며, H5N8형이 국내 발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H5N8형은 2010년 중국 장수성에서 한 차례 발병 사실이 확인됐으며, 다른 발병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형원과 N형원으로 구성되는데 고병원성을 지닌 AI는 대부분 H5·H7과 N1·N2·N8·N9의 조합으로 이뤄진다.

가장 흔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이며 N2·N8·N9 항원이 결합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AI는 N9형 항원이 붙은 H7N9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I 의심 가창오리는

11월 금강·고창·해남 등서 월동 이듬해 봄에 북상

가창오리는 기러기목 오리과 오리속에 속하며 러시아 레나강에서 시베리아 동부, 남쪽으로는 아르르와 사할린 북부, 동쪽으로는 캄차카 반도와 코만도르섬까지 분포한다. 몸길이 35~40cm, 날개 길이는 21cm이다.

특징은 다채로운 색깔과 눈을 시작점으로 얼굴에 나 있는 줄이다. 수컷은 몸 전체가 화려한 데 비해 암컷은 수수한 갈색을 띤다. 동우리는 낙엽송, 버드나무 등의 나뭇가지에 머물며 얇은 회색의 알을 6~9개 낳는다.

기온이 낮아지는 11월께 금강 하구, 고창 동림저수지, 해남 고천암호, 주남저수지 등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며 이듬해 봄에 북상한다.

지난 17일 가창오리 1천여 마리가 때죽을한 전북 고창군 동림저수지에만 10만 마리 이상 운집해 있다. 철새라는 특성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어 만약 집단 폐사의 원인이 AI로 밝혀진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케이티텔레캡(주) 자산 매각 공고

■ 일반 내역

소유주	케이티텔레캡(주)
건물명	케이티텔레캡 호남본부사옥
소재지	광주 서구 치평동 1220-1
면적	토지, 건물 전부
연면적	3,847.54㎡
규모	지하 1층 / 지상 7층
준공일	2005년 6월 17일
대지면적	860.30㎡
전용률	65%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도	업무시설
건물용적률	58.41%
건축면적	502.46㎡
엘리베이터	1대
주차대수	총 44대(자주식 10대, 기계식 34대)

기타

- 상가 및 업무시설 혼재 지역임
- 사육 인근으로 침투시행이 우려해 있으며, 상권이 발달한 편임
- 국내 주요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 수요가 밀집되어 있음
- 광주지하철 상무역, 순천역 도보 약 10분 거리

※ 본 건물내역에 사용된 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 기준임

■ 매각 Process

IM 배포 및 마케팅 추진	매수의향서 접수/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월 2일	1월 24일
1월 31일	1월 31일

1월 2일: 양해각서 체결/자산실사

1월 24일: 매계약 체결

1월 31일: 2월 14일

■ 접수방법

매수의향서는 매수의향서(ISO) 작성 후, 부대서류와 함께 봉인된 상태로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

■ 매각관련 문의 (주)케이티에스테이트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20 케이티선동타워 5층
- 전 화: 02-2040-3169 FAX: 02-2040-3086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실험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신청서류

- 당사 요청 양식에 의거
- 매수의향서 최종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서 1부, 법인 법인 인감도장 1부
- 입찰보증금 및 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계획 및 자료 (법인 통장잔고 증명 등)

■ 단계별 세부 추진 사항

- 1단계: IM 배포 및 마케팅 추진
- 2단계: 매수대상자 선정
- 3단계: 양해각서 체결 및 자산실사
- 4단계: 매계약 체결 및 매계약금

■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케이티에스테이트 운영컨설팅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원광실험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중앙지점 | 653-4474

학원생 모집

2월 10일 개강예정

강의과목

사주·자미두수
육효·풍수지리
기초부터 고급까지!!

· 육십갑자 해설 · 자미두수대전
· 잘먹고 잘사는 사주학의 저자가 직접강의

각종생활상담
직업·사업·궁합·택일·개업

풍수지리 출장감정
상담·소개도 가능

귀나산
원광실험

광주 광역시 북구 임동 92-83

임동오거리 062)527-0755
본원 010-5116-0766